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쟁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탈출 3,1-8ㄱㄷ.13-15

[화답송] 시편 103(102),1-2.3-4.6-7.8과11(㉞8ㄱ)



(후렴) 주님은 자비를 고 너 - 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를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령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제 2 독서] 1코린 10,1-6.10-12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마태 4, 17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루카 13,1-9

[성가안내]

- 입당성가 [115] 수난기약 다다르니
- 봉헌성가 [220] 생활한 제물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 파견성가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전 마지막 마가렛 이 영우, 이 태묘 이 정진 안토니오 최 순자 막달레나 최 순자 막달레나 김 용기 요셉 김 학순 이 천구, 이 애순 카타리나 이 정진 안토니오 이 정진 안토니오 김 용기 요셉 민 병택 베드로	가족 이 상홍 스테파노 장 혜윤 크리스티나 김 인수 안드레아 장 수림 에피파니아 제의실 봉사자 박 혜화 도미니카 조 성자 테레사 민 재인 테레사 이 경자 올리안나 민 덕미 안젤라 가족
생미사	봉헌
김 정숙 프란치스카 김 영희 (감사) 김 학순 가족 위해 모든 요셉 영명축일을 위해 이 현미 올리테레사	이 영애 레지나 김 영희 박 혜화 도미니카 김 경련 올리따 양 정윤 켈마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3월20일	백이백 아오스딩	박기웅 사도요한	최진영 수산나	박기웅 사도요한	이영혜 안젤라	정동주 유스토	김진수 대건 안드레아
3월27일	정동주 유스토	김은아 미카엘라	권민호 바오로	김은아 미카엘라	양미숙 마리아	한서희 테레사	김승현 마리아

● 2022 사순시기 '공동체 공동 보속' -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매주 공동체 한 단
체씩 주관하여 대성당에서 바칩니다.
- 3. 4 : 사목협의회 3. 11 : 청년회 3. 18 : 연령회
- 3. 25 : 성소후원회 (양업회) 4. 1 : 올드레아 4. 8 : 꾸리아

● 부활 판공 성사

- 재의 수요일부터 성주간 전까지 받으시는 모든 고백성사는
올해 부활 판공 성사로 간주됩니다.
- 고해성사는 2층 사무실에서 오전 8:30~8:50까지 합니다.
- 지하성당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 청년 미사 5월 14일(토)부터 시작합니다.

- 매월 둘째 토요일
- 미사 시간: 오후 6시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 모임: 오후 4시 30분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원 모집

- 문의 : 정 동주 유스토, 김 승현 마리아, 신부님

● 미동북부 성령쇄신 2022년 고백성사를 통한 사순
1일 피정신청 받습니다.

- 문의 : 김 영희 안나 347-665-6696
- 일시 : 4월 2일(토)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 주최 :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KACCR-NE)
- 참가비 : \$30 (점심, 저녁 제공)

● 연령회 회원 모집합니다.

- 장소 : 교육관 1B
- 문의 : 강 호영 안드레아 회장
- 회의는 없습니다.

● 뉴욕 대교구 분담금 자유로이 봉헌해 주시길 바랍
니다.

- 2022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분담금입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오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 ◎ 아멘.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 A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YN)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프란치스 룸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넷째 토요일 5:00pm	교육관 2E

[2022년 3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생명 윤리의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생명 윤리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
하도록 기도합시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WEST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정주 (소화데레사)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 이경희 (미카엘라) | |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13,1-9)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의 복음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지내려던 갈릴래아 순례자들을 빌라도가 살해했던 일이나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일이 닥칠 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언제나 갑자기 닥치는 것이니 일상의 생화개선이 때늦지 않는 회개일 것입니다.

오늘의 제 1독서 탈출기는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 속에 나타나시다'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불러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 한가운데서 불꽃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뜻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 가려고 내려왔다."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야훼', '나는 있는 나다'라는 뜻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그 이름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제2독서 코린토1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 이야기입니다. 탈출기의 사건을 그리스도론으로 해석하면서 회고했습니다. 구름이 이끌어 밤낮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했고, 홍해를 마른 발로 건너게 했으며, 만나를 먹여 주었고,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시게 하셨던 사건을 기억시키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체성사를 영하는 의미로 해석하며, 광야에서 투덜거리며 죽었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 코린토 교회 신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구원의 날의 심판은 느닷없이 덮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증개자로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참아 주시기를 간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하느님의 인내심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특 쓰는 영성'

분노는 나의 문제

살다보면 화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일이 안되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 분노들이 거의 다 본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 분노, 사람들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길 때 사람을 보지 말고 본인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여인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히면 무조건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살기등등하게 돌을 손에 든 사람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 하십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 저 여인을 돌로 내리쳐라"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나이든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끝까지 씩씩대며 돌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성 심리에서는 이 장면을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의 행동이 정의로움이 아니라 본인 안의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기 위해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본인 안의 감정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감정에 도취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내 안의 분노를 견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문보도를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분노나 심지어 적개심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정의로운 것도 있지만 때로 지나친 분노나 적개심은 내 안의 부정한 감정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영성가들은 어떤 일에 분노가 일어날 때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을 보라고 이야기 해온 것입니다.

폰대 유머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운이 뻗치는지 매일 소리 지르고 부추고 이혼하다 안 한다 울고불고 해서 동네사람들이 민망해하다 못해 진저리를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본당 신부도 나서서 말리려 했지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아서 언더리를 냈고 말리던 사람들도 지쳐서 다들 포기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언제 다투었냐는 듯 정겹게 길을 가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헤어지네 마네 하더니 저거 웬일이야" 하며 다들 놀랐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동시에 치매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가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으로 알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론 치매가 부부 생활에 도움이 되나봅니다.